

언론 사람

인터뷰

최완수

간송미술관 한국민족미술연구소장

언론중재위원회 NOW

2017년도 중재위원 연수

옛 그림과 차 한잔

돈에 새겨진 그림들

언론과 사람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



2017
Vol.208

10





일교차가 심한 날이 이어지고 있다. 한낮의 잠깐 따가운 햇살을 제외하면 이제 여름은 완전히 끝장이 났다. 어젠가 오늘인가 아침에는 춥기까지 했다. 계절은 서서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문득 다가왔다. 계절은 옷차림의 변화에서 다가온다. 두꺼운 옷을 꺼내입으면 그날부로 가을이다. 하얗 돌, 하얗 돌... 이제부터 가을임을 선언한다. “거기 젊은이 그 전차 타면 가을 빼먹고 겨울로 직행하겠소” 런던의 킹스크로스역 9와 3/4 플랫폼에서 기차를 타면 마법학교가 있는 호그와트로 갈 수 있듯이 저 전차를 타면 현대에서 과거로, 여름에서 겨울로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날씨다.

CONTENTS

2017 October Vol.208

홈페이지 www.pac.or.kr

언론중재 Eye-Net people.pac.or.kr

 pacblog.kr

 facebook.com/pacnews

 goo.gl/t9Kjeu

발행인 양인석

편집인 조남태

발행일 2017년 10월 1일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빌딩 15층

T 02-397-3114 F 02-397-3069

구독신청 홍보팀 T 02-397-3082~4

편집디자인 (주)계문사 T 02-725-5216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02 클로즈업

04 인터뷰

최완수 간송미술관 한국민족미술연구소장

06 미디어트렌드

언론사의 버티컬 브랜드 vs 버티컬 포털

07 심리학브런치

환경과 기분

08 언론중재위원회 NOW

2017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연수

09 언론법 이모저모

노출 연기와 배우의 품격

10 세상읽기

기록과 기억

11 영화 속 설득이야기

프레임에 갇힐 것인가 프레임을 만들 것인가

12 옛 그림과 차 한잔

화폐 속 미술

14 위원동정 / 위원회 뉴스

15 웹툰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실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통유'를 만나다

최완수

간송미술관 한국민족미술연구소장

수상 2010년 제21회 위암장지연상 한국학부문
2011년 제10회 일민문화상
저서 <추사명품(秋史名品)>(2017)
<검재 정선>(2009)
<한국 불상의 원류를 찾아서>(2007)
<그림과 글씨>(2000)
<진경산수화>(1993) 외 다수

66

9월의 어느 날,
성북동 간송미술관을 찾았다.
1930년대에 지어졌다는 미술관은
허름함 그 자체였다.
이 넓고 누추한 건물 속에
값을 매기기 어려운 보물이
여럿 수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다.
어둡고 칙칙한 미술관 안에서 나눈 대화는
뜨겁고, 참신하고, 아름다웠다.
화려함과 세련됨을 추구하는 이 시대,
우리는 무엇을 담아야 할까?

99



Q 선생님께서 전에 “문화를 식물에 비유한다면 이념은 뿌리이고, 정치·경제는 가지와 잎이며, 예술은 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A 옛 선비들은 정치, 경제, 철학 등 세상사를 통달하는 통유(通儒)가 되고자 했습니다. 청조 건륭제는 고증학자들을 동원해 모든 서적을 한데 모아 방대한 총서인 '사고전서'(四庫全書)를 만들기도 했죠. 널리 배우고 많은 것을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많아야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늘 '법고창신'(法古創新)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신' 이전에 옛것을 이해하는 '법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통유의 반대말은 궁핍한 선비, 궁유(窮儒)입니다. 아는 것이 적은 사람은 본인이 아는 것만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고집을 부립니다. 많이 아는 사람 눈에는 모든 것이 다 옳은 법입니다.

Q 지난 4월, 추사 김정희에 관한 평생의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명품 추사>를 발간하셨습니다. 선생님이 보시는 추사는 어떤 사람인지, 또 추사의 대표작 '세한도'는 왜 명품인지 궁금합니다.

A 추사의 '세한도'를 보며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대단하다고 얘기하니깐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죠. 추사는 사물의 본질만 표현했습니다. 나무의 본질을 추출해 나무가 가지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표현

을 그림에 담았죠. 본질이 아닌 모든 것을 덜어내는 능력을 가진 셈인데, 이 능력은 바로 공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추사야말로 앞에서 이야기한 ‘통유’였습니다. 이런 추사의 작품의 진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덜어냄을 알지 못하는 이의 눈에 추사의 ‘세한도’는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처럼 보일 것입니다.

Q |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A | 문화에는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의해 생겨나는 자생문화와 교류를 통해 들어오는 외래문화가 있는데, 문화사에서 자생문화만으로 살아온 민족은 없습니다. 자생문화가 다양하게 발달한 중국 역시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가장 끝에 있는 반도이기 때문에 외래문화의 종착역이었죠. 수많은 문화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취사선택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좋은 것은 잡싸게 취하고 융합하여 우리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속상해하는 것이 문명 자신들에게서 나온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르다는 것이죠. 진행형인 문화를 우리는 완성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석굴암은 불상의 완성형이고 미륵보살반가사유상은 반가사유상의 완성형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좋은 것만 숙아내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능력이 우리 민족의 탁월함입니다.

Q | 선생님께서 숙종부터 정조까지 조선 후기 125년을 ‘진경시대’라고 정의하시며 우리의 문화가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하셨습니다. 그 시기 조선의 문화가 전성기를 맞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요.

A | 진경시대를 얘기하려면 조선 시대 성리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조선의 건국과 함께 주자성리학이 들어왔고 조선 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체로 한 왕조의 수명은 250년 정도입니다. 한 왕조가 대략 8대에 걸쳐 집권하다 보면 부정부

패도 생겨나고 집권 능력도 상실합니다. 그런데 조선은 500년간 지속됩니다. 이 500년을 돌로 나누면, 전기 250년은 중국에서 들어온 이념을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살았고, 이후의 250년은 이전에 소화한 이념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철저하게 주자성리학에 입각하여 문물제도를 정비합니다. 세종이 그 역할을 했죠. 그런데 불교문화로 천 년을 살아온 백성들이 주자성리학을 제대로 이해할 리 없었습니다. 소학을 가르쳐 유교사회로 나아가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사회가 일어났습니다. 몇 차례의 사회를 더 겪으면서 사대부들은 이념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백성들의 공감과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선비들은 보따리를 싸들고 고향으로 내려갔고 집요하게 성리학에 천착합니다. 그 결과, 퇴계 이황의 이기이원론, 율곡 이이의 이기일원론이 탄생했습니다. 비로소 조선의 성리학이 시작된 것이죠. 중국의 주자학과는 판형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이념입니다. 이렇게 조선 고유의 이념이 싹트면서 문화 역시 본연의 색을 드러내며 찬란한 꽃을 피웠습니다. 뿌리가 바뀌어야 꽃이 바뀝니다.

Q | 진경시대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A | 우리의 이념이 가장 먼저 나타난 분야는 문학입니다. 율곡과 가까웠던 송강 정철이 관동팔경을 유람하며 “불정명에 올라가니 천길이나 되는 절벽을 공중에 세워 두고 은하수 한 굽이를 마디마디 잘라내어 실같이 풀어서 베풀어 놓았으니 도경에 그려진 열두 굽이가 내가 보기에는 더 여럿이구나. 이적선이 이제 여기 살아있어 다시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보다 낫다는 말을 못 할 것이다”라는 시문을 지었습니다.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 차 있죠. 우리 고유 이념의 생성과 함께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다음은 글씨입니다. 한석봉의 서체는 얼핏 보면 딱딱하고 거친데, 우리 민족의 강경명정(剛硬明正), 바위에 붙어사는 강인함과 사계절의 경계가 명확한 맛을 담았죠. 마

지막이 그림입니다. 그림은 이념에 대한 이해는 물론 기술까지 요하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등장합니다. 우리 산천을 그리고 싶은 사대부들의 욕구가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화원들을 불러 금강산, 삼각산을 그려보게 했지만 이전의 중국 기법으로 그려내는 데 그쳤습니다. 우리 기법으로 그린 우리 산천의 그림을 간절히 원했던 바로 그때, 겸재 정선이 등장했습니다. 겸재가 우리의 진경산수화를 그리기 시작한 것이죠.

Q | 겸재가 조선시대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주세요.

겸재의 스승은 김창흡이었습니다. 김창흡은 병자호란 때 강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절을 지킨 우의정 김상헌의 증손자로 강한 조국애를 가졌으며, 율곡의 학통을 이어받은 분이었죠. 명문가에서 태어났음에도 벼슬하기를 마다하고 학문에만 정진합니다. 그런 스승 밑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겸재는 사대부가 원했던 그림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보통 하나의 화법은 창안한 세대, 절정에 올려놓는 세대, 완성하는 세대, 이렇게 3세대를 거치면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겸재는 84년을 살면서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해냈습니다. 그 결과, 이후 어떤 이도 겸재의 진경산수화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조선 풍속화의 시작 역시 겸재입니다. 겸재의 그림에서 금강산 아래 갓 쓰고 도포 입은 선비들의 모습, 승복을 입은 승려들이 등장합니다. 산수는 변하지 않아도 풍속은 변하기 마련이니, 해원 신윤복, 단원 김홍도와 같은 후배들이 풍속화를 계속해서 그려나갔습니다. 난만하게 발전한 시기를 지나 청조의 고증학이 새로운 이념으로 솟아나고 조선의 성리학으로 대체된 시기가 바로 진경시대이자 겸재가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었던 때입니다.

언론사의 버티컬 브랜드 VS 버티컬 포털



SBS의 알파벳 초성을 모아 만든 ‘스브스뉴스’는 기발한 작명과 카드뉴스라는 참신한 형식의 콘텐츠로 뉴스 소비자들에게 각광받았다. 지상파 TV라는 고전적 플랫폼의 경직성을 벗어나 모바일 유저들에게 어필하는 서브(sub) 브랜드를 만들어낸 것이다. SBS는 스브스뉴스 외에도 비디오퍼머, 모비딕 등의 서브 브랜드를 갖고 있다.

홍보 및 광고업계 뉴스사이트인 <더피알>에 따르면 이 같은 서브 브랜드는 선두주자격인 경향신문의 '향이네'를 비롯해 한국일보의 '동그람이', KBS의 '고봉순', 한국경제의 '뉴스래빗', 국민일보의 '행', 조선일보의 '조선이보' 등 16개에 달한다. 전통 매체들의 간판 브랜드 아래 매달려있다고 해서 '버티컬 브랜드'라고도 한다.

미디어 콘텐츠 업계에서는 신문과 TV 등 전통 매체들을 '레거시 미디어'라 부르는 것이 유행이다. 레거시(lagacy)의 사전적 정의가 '죽은 자의 유품'이라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전통 매체들이 전통이라는 미명에 기대 연명하기보다는 끝내 매체 기능이 정지돼 박물관에 들어가고 말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반영된 듯하다.

버티컬 브랜드는 어떤 의미에서 레거시 미디어들이 모바일 기반의 새로운 뉴스 플랫폼에서 살 길을 모색하는 일종의 구명정(救命艇)일수도 있겠다. 뉴스 콘텐츠를 쉽고 재밌게 전달함으로써 쓸물처럼 이탈해 가는 뉴스 소비자들을 붙들려는 의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

분명한 점은 버티컬 브랜드 실험이 수익모델로 발전하지 못하는 한
구명정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전통매체들의 구명정 찾기는 지
난해부터 '비슷하지만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나날이 수익성이 급전직화하는 전통매체의 암울한 처지는 검색포털 이자 뉴스종합포털인 네이버를 떼놓고 말하기 힘들다. 하루 3억 3000 만 회에 달하는 네이버 뉴스판의 페이지뷰는 연간 1조 원을 넘어선 네이버의 검색광고 수익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 전통 매체들로서는 어렵 사리 만들어 낸 뉴스 콘텐츠에 응당 지불받아야 할 대가를 네이버가 빼

앗아가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버릴 수 없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버티컬 브랜드가 수익성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네이버는 솔직한 제안을 내놓았다. 언론사의 버티컬 브랜드에 대응하는 것이 네이버의 '버티컬 포털'이다. 뉴스판 아래에 연예, 스포츠, 패션, 자동차 등 다양한 주제별로 큐레이션되는 포털이라고 해서 주제판이라고도 한다. 언론사들이 버티컬 포털 중 하나를 맡아서 대신 운영해주면 연간 10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이다.

지나해 2월부터 조선일보가 취업판(JOB&)을 맡아 운영하고 있고 6월에는 매일경제가 여행판(여행+), 한겨레가 영화판, 중앙일보가 중국판 등 현재 12개 언론사가 네이버의 벤티컬 포털 하나씩을 차지했다.

수수료는 해당언론사 51%, 네이버 49% 비율로 투자해 설립한 별도 조인트벤처(JV)의 매출이기 때문에 얼마가 남은 해당 언론사 수익으로 바로 이전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언론사들은 버티컬 브랜드와는 달리 ‘국민포털’ 네이버의 플랫폼을 활용해 콘텐츠 소비자의 반응을 살필 수 있고 이를 통해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 때문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버티컬 포털은 버티컬 브랜드가 못해 낸 구멍정의 구실을 해 줄 것인가. 평균 1년이 못 지난 시점에서 평가하긴 이르지만 분명 한 것은 버티컬 브랜드가 입든 굵든 언론사의 것이라면, 버티컬 포털은 어디까지나 네이버의 것이라는 점이다. 버티컬 포털을 잘 운영하는 데만 머물러서는 구멍정이 돼 줄 수 없다.

네이버 버티컬 포털을 운영하는 12개 언론사 JV와 수많은 언론사 버티컬 브랜드들이 저마다 활로 찾기에 여념이 없다. 과연 이중 어디서 성공모델이 나올지, 나옴더라도 해당 언론사의 성공적인 각자도생에 그칠지, 플랫폼을 혁신적으로 바꿀 '게임 체인저'가 출현하게 될지 미디어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환경과 기분

정신과에 오신 분들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자주 물으시는데요, 과연 무엇이 그분들을 정신과로 오게 했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멀지 않은 데 있습니다. 바로 환경입니다.

우리의 기분과 생각 그리고 행동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상처가 되는 말을 듣거나 충격적인 일을 겪는 등의 심리적인 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는 반드시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나 육체적 피로, 호르몬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계절과 우울증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여기에는 일조량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열대 기후의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여유로운 문화를 가지고 있고 자살률도 낮은 반면,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살기 좋은 북유럽 국가에 오히려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다. 그만큼 햇빛은 우리의 기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꾸준히 햇빛을 쬐는 것은 기분 변화의 예방에 중요합니다. 겨울에 햇빛을 쬐고 우울증이 나아지는 효과를 얻으려면 여름보다 두 세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곧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여 가을에 햇빛을 많이 쬐 두는 것이 장기적 예방 효과에 도움이 됩니다. 신기하게도 집안으로 들어오는 햇빛만 쬐면 우울증 예방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 원인이 유리창의 차단 효과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제 생각에는 최소한 밖으로 걸어나가 햇빛을 보는 정도의 노력이 함께 할 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름에 유독 분노조절장애를 호소하며 병원을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교차가 크면 감정이복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낮 최고기온이 너무 높으면 예민해지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신경을 써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겠다고 마음먹지만 말처럼 쉽지 않겠죠? 공황발작 역시 일교차가 클 때 더 많이 발생하긴 합니다만, 사실 술이나 커피만큼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바뀌는 날씨와 기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저기압일 때 편두통이 심해지고 간질 환자의 발작 빈도가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를 보면, 기압도 뇌세포나 호르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죠? “무릎도 아프고, 비가 오려나”라는 할머니의 말이 아주 많이 틀리지 않은 것이 실제로 저기압 날씨에서 통증을 더욱 심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 저기압 날씨에 월경이 겹치면 생리통을 좀 더 심하게 느끼고 우울감을 느낄 확률이 더욱 높겠죠. 하지만 정신과나 상담센터라는 곳이 하루 이틀 기분이 안 좋다면 방문하는 데가 아니다 보니 비 오는 날에는 확실히 방문하는 분이 적고 예약 취소도 많습니다.

저 역시 열대우림이나 북극 근처에서 태어났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거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날씨도 우리 삶도 요즘처럼 덥지도 춥지도 않은 가을이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날씨와 계절에 책임을 돌릴 수는 없지만 가끔은 마음이 힘든 날에 날씨 탓을 하며 조금 쉬엄쉬엄 일하고 여유를 찾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고유한 나 자신이라고 믿는 부분도 실은 환경과 나 자신의 관계로 생겨나는 것일 테니까요.

‘경청’하고 ‘공감’하면 조정길의 길이 열려

위원회는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2017년도 중재위원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청렴윤리연구원 김덕만 원장을 초청하여 청탁금지법 관련 특강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동국 중재부장(강원중재부)의 사회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정 사례 연구>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제6중재부의 손관승 위원과 경기중재부의 한기봉 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진형혜 위원(서울제1중재부), 이관해 위원(서울제3중재부), 정연우 위원(충북중재부), 양원홍 위원(제주중재부) 외에도 전국 18개 중재부의 중재위원 30여 명이 참석하여 각자가 터득한 심리 진행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열띤 논의를 펼쳤다.



손관승 중재위원, 서울제4중재부

A 병원은 슈퍼박테리아 보균자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미흡하게 관리했다고 보도된데 대해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조정을 신청해왔습니다. 이례적으로 병원장이 직접 심리에 참석했을 만큼 병원 측은 매우 화가 난 상태였죠. 격앙된 감정과 반드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받아야겠다는 신청인 측의 주장 때문에 좀처럼 합의가 어려워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결국 조정성립으로 마무리되었는데, 그 비결은 바로 ‘경청’과 ‘리액션’입니다. 법조인, 언론·법학 전문가, 전직 기자 등으로 구성된 중재부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입장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저는 방송사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자의 사명감과 취재 환경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을 표현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고 신청인의 감정이 누그러진 것입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분한 마음, 감정적인 독소를 어느 정도 해소해주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진형혜 중재위원, 서울제1중재부

민사소송의 경우 재판부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 이상으로 인용할 수 없지만, 위원회는 조정·중재절차를 주관하기 때문에 신청취지와 달리 피해 회복에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기봉 위원님의 발제에 나온 언론의 편파적 가십 기사의 경우, 설사 신청인이 기사삭제를 원하지 않았더라도 신청인에게 가장 적합한 피해구제수단이 기사삭제라면 위원회가 이것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을지 고민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기봉 중재위원, 경기중재부

언론사는 B 대학의 교수가 직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있다고 보도하며 통화녹취파일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욕설이 오고간 부분만 편파적으로 발췌되었다며 정정보도와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신청인은 학생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였고, 교수가 학생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며, 주요 내용을 발췌하는 것은 보도관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중재부는 신청인에게 지극히 불리한 부분만 보도되어 신청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정정 및 반론보도와 5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직권조정을 결정했고, 다행스럽게도 위 결정내용대로 이행이 되었습니다. 추후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결정이나 보도의 악의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 참고할만한 사례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정연우 중재위원, 충북중재부

양자 간에 잘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중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 보도가 공적으로 의미 있고 수용자들의 입장에서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보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신청인과 신청인 간 힘이 불균형한 경우가 있습니다. 심리 내내 이러한 관계가 지속된다면 중재부가 얼마만큼 개입할 수 있는가 고민해봐야 합니다.

노출 연기와 배우의 품격

“난 모히또 가가지고 물디브나 한 잔 할라니까” 영화 〈내부자들〉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대사. 안상구 역을 맡은 이병헌 씨의 연기는 정말이지 너무 훌륭했다. 이 영화에서 유명한 장면은 또 있다. 대기업 회장의 별장에서 이루어졌던 성접대 장면이다. 이 대목에 등장하는 배우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벗었다. 충격적인 장면임에 틀림없지만, 그 덕에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일부 지도층 인사들의 부패와 타락상에 대한 분노를 깊게 느낄 수 있었다.

영화가 개봉된 지 두 달도 더 지난 시점이었던 2016년 1월 31일, 한 언론사에서 〈내부자들〉 관련 기사를 썼다. 「영화 내부자들 감독판, 성접대 여배우 명단 보니…」 제하의 기사에서는 배우 A 씨가 접대부 역으로 성접대 장면에서 출연했다고 보도한 것이다. 그런데 이빨싸, 오보였다. 기사 작성 시 참고했던 한 포털사이트 영화정보에 오류가 있었다고 한다. 이를 미처 걸러내지 못한 기자의 실수는 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난 4월 21일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언론사에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16가단5118335).

언론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를 옹호할 마음은 조금도 없다. 하지만 이번 판결 내용 중에 명예훼손에 대한 개념 정의와 관련해서 따져볼 점이 없지 않다. 법원은 A 씨의 명예훼손 주장과 관련해 “이 사건 기사가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A가 이 사건 영화의 성접대 장면에서 단역으로 출연하여 자극적인 노출연기를 선보였다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와 같은 기사는 이 사건 영화에 출연하지도 아니한 원고의 여배우로서의 이미지 내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으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혹시 오보여서 그런 것인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을 위해 판결에서는 “실제로 출연하였다고 하더라도 …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이 보기에 노출 연기는 여배우의 품격을 훼손



할 수도 있는, 참으로 나쁜 것(!)이었나 보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여배우는 그렇다 치고 남자 배우들의 노출 연기는 어떻게 되나. 영화 속 그 장면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으로 음흉한 권력자들의 이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백윤식, 이정영 씨의 연기는 중견배우로서의 품격을 떨어뜨릴 만한 것이었던가. 또 각종 영화에서 악역을 맡은 배우들이 리얼하게 연기하면 할수록 자신의 평판을 훼손하는 일이 되는 것인가. ‘포르노’에 출연한 것도 아니고 상업적 대중영화에서 그저 벗은 몸으로 연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영화 〈내부자들〉을 불법적인 음란물로 규정할 생각이 아니라면, 그저 상업영화에 배우가 벗은 몸으로 출연, 접대부 역할을 연기했다고 해서 ‘나쁜 행동’을 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일도 없어야 한다. 사건에 불과하지만, 그런 점에서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한 이번 판단은 재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다. 우리 사회 내에 이 문제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 존재할 수 있으니 말이다. 흔히 ‘사회적 편견’이라 부르는, 여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이 있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며 무책임한 판단이라 여길 지도 모르겠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상황에 적합한 법익 침해는 명예훼손보다는 사생활 침해다. 사생활 침해 중에서도 ‘사적 영역에 대한 왜곡’에 해당하는 문제다. ‘사적 영역에 대한 왜곡’은 내용상의 왜곡만 있으면 되고, 그 내용이 굳이 명예훼손적일 필요까지는 없다. 예를 들어, 나에 관해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는다고 기사화되었다면 명예훼손은 안 되겠지만 ‘사적 영역에 대한 왜곡’이어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언론법 영역에서 명예훼손이 차지하는 범위는 지나치게 넓다. 전체 언론분쟁사건의 90% 이상을 명예훼손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법 적용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라도 굳이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는 영역에까지 명예훼손을 적용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기록과 기억



왕은 역사의 법정이 지엄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기록에 따르면, 왕은 사냥을 즐겼습니다. 갑신년 이월 십일에 노루 두 마리, 을유년 봉안역에서 노루 두 마리를 쏘았습니다. 왕은 자주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갑신년 말에서 떨어지고 이듬해 이월에도 낙마했습니다. 언관들은 왕에게 사냥하지 말라고 간했습니다. 봄날에 농사짓는 백성을 살피서 부족한 것을 돕는 것이 왕의 사명이거늘 몰래 말을 타고 나가서 사냥하고 마시는 따위의 일이 도대체 백성을 위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사간원은 따졌습니다.

담대한 사관들이 왕의 왕으로서의 도덕적 파산을 막아주었습니다. 신사년 삼월 첫 사냥 때 사관이 왕을 동행합니다. 민인생이었습니다. 왕이 눈짓으로 부하들에게 웬 놈이 뭐하러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닷새 후 회의 자리에서 왕은 사냥터에 사관이 따라 온 이유를 캐물었습니다. 사관 민인생은 왕이 머무는 곳에 들지 말고 가는 곳에 따르지 말라는 엄명을 개의치 않고 왕을 기록했습니다. 왕의 면전에서 민인생은 거침없이 말합니다. “사관이 곧게 쓰지 않으면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 편전에서 쫓겨난 민인생은 밖에서 기웃거리며 왕을 기록하다가 왕에게 들려 변방으로 귀양을 갔습니다. 왕의 언동은 다소 공근해졌습니다. 한 날은 말을 달려 노루를 쏘다가 말이 거꾸러지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좌우를 돌아보며 왕이 말합니다.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그 말을 사관이 태종실록 7권에 기록했습니다. 태종 4년 1404년 2월 8일의 일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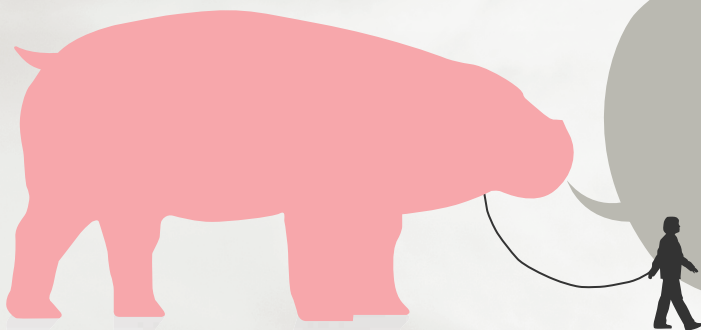
장군은 자주 활을 쏘았습니다. 처음부터 평생 그랬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임진년 정월 14일 업무를 끝내고 활을 쏘았습니다. 업무를 보고 활을 쏘았다, 활을 쏘았다, 쏘았다는 기록이 이어집니다. 4월 13일 활 15순을 쏘았습니다. 임진전쟁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장군의 기록은 촘촘합니다. 제삿날이나 배에 올라 작전을 펼친 날, 종일 비가 퍼붓거나 잡혀가 옥살이를 하고 풀려나 백의종군을 하던 때를 빼고 일상적으로 활을 쏘았습니다.

장군의 울음은 우물처럼 깊었습니다. 기록은 세세하고 정직합니다. 옥에서 풀려나 백의종군하러 남쪽으로 향할 때 어머니의 부고를 접합니다. 정유년 4월 13일이었습니다. 부음을 듣고 뛰쳐나가 둥그러지니 하늘의 해조차 캄캄하다고 적었습니다. 영구를 상여에 실어와 빈소를 차리는데,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남쪽 길은 급박했습니다. 금부도사가 남쪽 행을 재촉합니다.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남쪽 바다에 묵던 장군은 새벽닭 울음에 일어나 눈물만 흘립니다. 늦은 밤 홀로 있을 때, 달빛이 대낮 같은 날 잠들지 못했다고

썼습니다. 여섯 달 후 아들 면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사 소식에 간담이 타고 찢어졌다고 적었습니다. 그나마 마음 놓고 울지를 못해 소금 굽는 사람 강막지의 집에 가서 혼자 울었다고 써두었습니다. 어떤 날 저녁 장군은 코피를 한 되 남짓 흘렸습니다. 그런 날에도 장군은 맑은 후 밤 9시에 비가 내렸다고 기록했습니다. 승첩한 장계를 작성했습니다. 장군의 일기는 전사하기 이를 전까지 계속됐습니다. 전사(戰史)가 되었습니다.

기록은 기억보다 강합니다. 기록이 진실할수록 그 명제는 더욱 타당합니다. 기록할 수단을 권력이 독점하고 자기 입맛대로 기록을 변형해 저장하던 시절이 오래갔습니다. 그 때 사람들의 개별 기억과 권력이 만든 기록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기록할 방법과 기회를 빼앗긴 시민들은 권력이 들추어 볼 수 없는 곳에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기억입니다. 개별 시민의 기억은 작고 짧기에 시민들은 기억을 나누고 공유하며 기억되는 양과 시간을 늘렸습니다. 개별 기억이 시대의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목숨을 걸었습니다. 택시 운전사 김사복과 한 세대 후 천만 관객들처럼 말이지요. 조작한 기록은 시민의 기억 앞에 무력합니다. 모여서 진실이 되는 기억이 시민의 면면한 마음속에 기록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 시민들의 기억은 기록보다 강합니다.

왕은 스스로 기록한 바 없으나 언관의 말을 마음에 기록했습니다. 화내고 겁주고 내치기도 했습니다만 사관이 자신을 기록하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왕의 도덕적 파산을 막은 것은 언관의 말과 사관의 기록이었습니다. 장군은 스스로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정과 간신과 패덕한 장수들에 대한 공분, 부하를 상주고 벌한 이유와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어머니를 여인 슬픔과 그리움, 아들을 잃은 아비의 피 끓는 통탄을 난중의 일기에 적었습니다. 나라가 파산하지 않은 데 개별 시민의 고통과 슬픔이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언론은 기록하는 존재입니다. 대의제 나라에서 언론의 기록을 봉쇄하는 것은 혹은 언론이 변절하여 스스로 직필의 기록을 포기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산하자는 것입니다. 문득 언론중재위원회란 곳이 시대의 사실들을 바르게 배열하는 기록의 조정실이자 개별 개인의 아픔을 해소하는 기억의 치유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좋은 기억 하나가 그릇된 기록보다 만 배쯤 더 힘이 있어 보입니다.



프레임에 갇힐 것인가 프레임을 만들 것인가

- 영화 <옥자>를 통해 본 프레임의 중요성 -

프레이밍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피사체를 카메라 파인더에 적절히 배치하여 화면을 포착하는 것을 말하지요. 파인더를 고정하는 방식에 따라 같은 풍경을 찍더라도 각기 다른 분위기의 사진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관점, 프레임에 따라 세상을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프레임을 가진 상대방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커뮤니케이션에서 프레임이 왜 중요한지 영화 <옥자>를 통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미란도 그룹은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돼지를 식품으로 가공해 판매합니다. 하지만 미란도 그룹은 동물 실험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잘 알고 있기에 친환경 이미지로 제품을 잘 포장하죠. 미란도 그룹은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 유전자 조작 돼지를 세계 각지의 농가로 보냅니다. 옥자와 한국의 산골짜기 소녀 미자가 10년간 함께 하게 된 배경입니다. 10년 뒤 미란도 그룹은 옥자를 슈퍼 돼지로 선정하여 뉴욕으로 끌고 갑니다.

미자 (저금통을 깨고 금돼지를 챙기면서) 가서 옥자를 데려 올 거야.
할아버지 (깨진 저금통을 치우면서) 어디를 가려고 그래? 어딜 가! 거기 서지 못해!
미자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잠시 머뭇거림)
할아버지 목살, 등심, 삼겹살, 사태... 알겠어? 이번에 가면 이렇게 되는 거여. 이게 이놈이 타고난 팔자여, 팔자.

할아버지와 미자가 옥자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너무 다릅니다. 할아버지는 옥자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미자에게 그저 '고기'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할 수 없는 프레임은 설득에 방해가 될 뿐이지요. 할아버지가 미자의 프레임에 공감을 표현했다라면 설득에 더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영화에는 기존의 프레임을 다시금 설정하는 리프레이밍 설득기법도 등장합니다. 고객을 설득하는 기업 홍보는 사실상 프레임의 싸움이지요. 루시는 미란도 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이 만들어질 것을 우려하며 생각을 180도 전환하는 새로운 발상을 통해 대중을 리프레이밍합니다.

프랭크 루시, 저 소녀 말인데요. 뉴욕으로 초청할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이까 베스트 슈퍼돼지 축제에 소녀를 초대해서...

루시 억지로 헤어졌던 슈퍼돼지와 귀여운 시골소녀가 우리 무대 위에서 재회하는 거지. 그 애는 미란도 그룹의 새로운 얼굴이 될 거야. 어리고 여성적이고 친환경적이고 글로벌하잖아. 신이 보내준 아이야!



다수의 연구를 통해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이라도 긍정적으로 프레임한 상황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상대로 '생존율이 90%인 수술'과 '치사율이 10%인 수술' 중 하나를 고르라는 실험을 했더니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미국 낙태반대운동의 슬로건은 '낙태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지지'입니다. 낙태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생명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선택에 대한 지지'라고 소리치는 이유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를 설득할 때 '프레이밍'이라는 요소를 어떻게 다룰지 이제 정리가 되네요. 첫째, 상대방의 프레임을 존중하라. 둘째, 상대의 프레임이 나에게 불리하다면 이를 리프레이밍하라. 셋째, 최대한 긍정적으로 리프레이밍하라.

한번 현실에 대입해보겠습니다.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 상황에 놓인 기업과 언론사를 상대로 조정 절차를 설명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전쟁 같은 상황'이라는 틀에 가두는 것 보다 '앞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될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틀로 접근하는 것이 더 나은 프레임인 것입니다.

당신의 지갑 속에 국보급 그림이? 돈에 새겨진 그림들



5만원권 지폐 뒷면에 실린 어몽룡 작 달밤에 핀 매화.
17세기. 119.1×53.0cm. 국립중앙박물관



1만원권의 세종 초상 옆에 곁들여진 일월오봉도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면서도 별 관심 없이 지나치는 게 여럿 있습니다. 돈에 새겨진 그림이 그런 경우죠. 요즘엔 현금보다 카드를 주로 쓰게 되니 지폐를 들여다볼 기회가 줄었지만, 지폐 속 그림은 국보급의 귀한 그림들이니 살펴볼 가치가 꽤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를 내볼까요? 1만원권 지폐에 세종대왕이 새겨져 있는 건 모두들 아실 텐데, 백원짜리 동전에 새겨진 인물은 누구일까요? “아, 인물이 있긴 했는데, 누구였더라...” 감감하시다고요? 충무공 이순신입니다. 동전 속 충무공은 월전 장우성 화백이 그린 표준영정을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지폐와 주화에 새겨진 인물은 모두 다섯 명입니다. 그런데 5만원권의 신(申)사임당을 빼고는 공교롭게도 모두 이 씨 성(姓)의 남성입니다. 조선시대 인물인 것도 공통점이고요. 그래서 “이 씨 인물을 빼고, 안중근 의사를 넣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많고 많은 성씨 중에, 왜 이 씨만 새겨 넣느냐는 거지요. 화폐 속 인물은 그 나라의 상징이자 얼굴인 만큼 그런 반론이 나올 법합니다.

자 그러면 각 지폐 별로 어떤 인물과 문화재가 실렸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1천원권 앞면에는 조선시대 성리학자이자 문신인 퇴계 이황(1501~70)의 초상(현초 이유태 作)과 그가 유학을 가르치던 명륜당이 그려져 있습니다.

뒷면에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화가 겸재 정선(1676~1759)의 ‘계상정거도(溪上靜居圖)’가 실려 있습니다. 겸재는 퇴계가 관직에서 물러나 살았던 서당을 유려한 필치로 그렸습니다. 존경받는 대학자가 자신의 호(퇴계)처럼 조정을 홀연히 떠나, 계곡에 작은 집을 짓고 학문을 연마하던 모습을 한 폭의 산수화에 녹여낸 거죠. 그림 속 서당에는 선비가 정좌해 있는데 퇴계입니다.

화가는 서당 주변에 둥글게 뻗은 산맥(理에 해당)을 그려 넣고, 바위와 나무, 집(氣)을 중앙에 배치했습니다. 퇴계가 주창했던 ‘이기가원론’을 고요한 풍경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그림은 보물 제 585호인 ‘퇴우이선생진적첩’에 수록돼 있습니다. 겸재의 진경산수화 등 모두 16면으로 구성된 이 서화첩은 1975년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K옥션 경매에 출품돼 34억원에 낙찰됐고, 이후 삼성미술관 리움이 소장 중입니다. 2008년 ‘계상정거도’를 위작이라 주장한 연구자가 있었으나 정밀감정 결과 진작으로 판명됐습니다.

5천원권에는 퇴계와 함께 ‘조선전기 성리학의 태두’로 꼽히는 율곡 이이(1536~84)가 등장합니다. 율곡의 초상은 일랑 이종상 화백(서울대 명예교수)이 37세 때 그렸습니다. 일랑은 30여 년 후 5만원권의 신사임당 초상도 그렸으니 화가로선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을 누린 셈이죠. 5천원권 뒷면에는 율곡의 어머니인 신사임당 그림으로 전해지는 ‘초충도(풀과 벌레 그림)’가 실려 있습니다. 수박과 맨드라미 그림인데요, 정확한 낙관만 있었다면 보물로 지정됐을 그림입니다. 신사임당은 섬세한 표현의 ‘초충도’로 유명한데, 초서와 전서 등 글씨도 높은 평가를 받는답니다.



1천원권 뒷면에 실린 겸재 정선의 계상정거도. 퇴우 이선생 진적첩에 포함된 작품이다. 1746, 삼성미술관 리움

다음으로 세종대왕이 그려진 1만원권 그림을 살펴볼까요? 세종대왕 초상은 윤보 김기창 화백이 1975년 한국은행 의뢰로 그린 것입니다. 수많은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을 자애롭게 표현한 이 초상은 표준영정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선 윤보의 과거 친일행적을 문제 삼아 '1만원권 초상과 표준영정을 바꿔야 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만원권 세종 초상 옆에는 '일월오봉도'가 배경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와 달, 다섯 개의 봉우리, 소나무가 그려진 일월오봉도는 조선 시대 임금 뒤편에 세워졌던 병풍입니다. 1만원권 뒷면에는 세종이 독려해 제작한 '혼천의'가 등장합니다. 혼천의는 시계 기능과 함께 천체의 운행과 위치 등의 관찰 기능도 있는데, 송이영이 제작한 혼천의(국보 제230호)가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5만원권에는 신사임당(1504~51) 초상이 실려 있습니다. 여성이 한국 지폐에 등장한 것은 처음인데요 신사임당을 가장 고액권에 실기로 하자 반대가 대단했습니다. 5천원권에 율곡이 등장하는데, 굳이 모자(母子)를 화폐에 등장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이었지요. 일평생 커다란 굴곡 없이 살았던 반가의 여성을 지폐에 모시느니 차라리 유관순 열사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여성을 모시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신사임당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신사임당은 양반 출신으로 온실 속에서 호의호식한 것은 맞지만, 여성의 자주적 예술활동과 시문 활동이 거의 없던 조선시대에 자신만의 창작세계를 꾸준히 연마했던 흔치 않은 여성 예술가입니다. 그의 빼어난 그림과 글씨, 문장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모본입니다. 신사임당은 정

쟁에 휘말릴 뻔한 남편을 슬기롭게 보필했고, 아들(율곡)을 훌륭한 학자이자 정치가로 키웠습니다. 조선시대를 관통하는 '어머니의 표상'이자 '최고의 여성상'이어서 최종 낙점됐지요. 마침 '여성 인물도 화폐에 등장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주효했지요.

5만원권 전면에는 신사임당의 자수병풍 중 가지가 그려진 초충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보물 제595호인 신사임당의 '초충도 8폭 자수병풍' 중 가지와 방아깨비 그림이 채택됐지요. 탐스럽게 익은 가지 위로 나비가 날고, 땅에는 방아깨비가 쇠뜨기를 향해 다가갑니다. 일곱 살 때부터 안견의 그림을 모사하며 재능을 보였던 신사임당의 역량을 살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초충도 위로는 조선시대 목포도(먹으로 그린 포도그림) 거장인 황집중의 싱그러운 포도 그림이 보입니다.

5만원권의 하이라이트는 뒷면에 새겨진 어몽룡(1566~1617)의 매화 그림입니다. 우리 화폐 속 그림 중 단연 압도적인 그림입니다. 채색을 사용하지 않고 먹으로만 그린 어몽룡의 '달밤에 핀 매화'(약칭 '월매')는 굵은 매화줄기가 곧게 뻗어나간 수직구도가 무척 과감합니다. 고담한 분위기인데도 현대적이지요. 겸재의 '계상정거도'도 걸작이지만 5만원권 뒷면을 가로지르는 어몽룡의 '월매'는 우리 지폐의 품격을 한껏 올려놓고 있습니다. 위조방지용 홀로그램 삽입을 위해 하늘의 보름달이 매화가지 옆으로 내려온 게 '옥의 티'이지만, 하늘로 쭉 뻗은 매화줄기가 갇은 고난 속에서도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겨레의 당당함을 은유하는 듯해 자꾸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음미해보셔요. 분명 반하실 거니까요.

COMMISSIONERS ▶▶▶ 위원동정



주정민 위원, 〈한국의 이민정책과 고려인의 법적 지위〉 토론

주정민 중재위원(광주중재부,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이 9월 2일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기념하고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학술회의에 참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주 위원은 고려인들이 처한 상황과 어려운 현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양태경 부장, 〈2017년 찾아가는 열린 법정〉 심리

양태경 중재부장(충북중재부,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이 9월 6일 청주대학교 청석홀에서 열린 〈2017년 찾아가는 열린 법정〉 행사에 참석했다. 체험을 통한 법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양 부장은 재판장을 맡아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 등 2건의 사건을 심리했다.

김봉철 위원, 〈지역적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

김봉철 중재위원(전북중재부,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9월 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컨퍼런스홀에서 〈지역적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 위원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정착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재규 부장, 〈창원지법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 심사

정재규 중재부장(경남중재부, 창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이 9월 11일 창원지법 대법정에서 개최된 〈창원지법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의 심사를 맡았다. 9월 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행사로 마련된 이번 경연에서는 본선에 진출한 6개의 팀이 모의재판을 진행했다.

최영재 위원, 〈제11회 강원NIE대회〉 심사

최영재 중재위원(강원중재부, 한림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이 9월 18일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1회 강원NIE대회〉에 참석했다. 강원일보사와 한림대가 공동 주최하고 도교육청이 후원한 이 대회에서 최 위원은 심사위원을 맡아 우수한 신문 활용 교육의 사례를 평가했다.

정연우 위원, 〈위기의 제천, 지역발전의 해법을 모색한다〉 사회

정연우 중재위원(충북중재부, 세명대 사회과학대학장)은 9월 25일 충북도청 북부출장소에서 〈위기의 제천, 지역발전의 해법을 모색한다〉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 위원은 사회를 맡아 발제와 토론을 이끌었다.



NEWS ▶▶▶ 위원회 뉴스

위원회 웹드라마 〈오보 찾아 흥신소〉 크랭크인

위원회가 기획하고 (주)클롱이 제작하는 웹드라마 〈오보 찾아 흥신소〉가 지난 9월 제작에 돌입했다. 〈오보 찾아 흥신소〉는 주인공 보해(인혜선 분)가 잘못된 보도로 입은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과 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과정을 담았다. 〈오보 찾아 흥신소〉는 10월 중순 네이버TV, 카카오톡 등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언론중재〉 가을호 발간

연구팀은 9월 30일 〈언론중재〉 가을호를 발간하였다. 'Focus on media' 코너에서는 〈웹 3.0 시대의 저널리즘 윤리〉를 주제로 '소셜미디어 시대의 저널리즘 역할과 과제', '실시간 검색어와 디지털 낙인, 무엇이 문제인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광고 윤리' 등에 대해 다루었다. 이 외에도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관련 판례, 소셜네트워크의 페이크뉴스와 혐오표현 등에 관한 글을 담았다.



여운규 부산사무소장 〈부산에서 살던 때가 그림습니다〉 발간



여운규 부산사무소장이 에세이 〈부산에서 살던 때가 그림습니다〉를 발간했다. 1부는 여 소장이 나고 자란 부산의 동네와 음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가 응원하는 야구팀 롯데 자이언츠 이야기를 담았다. 2부는 신림동과 신촌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하숙생활 등 서울 정착기를 다뤘다.

제1회 웹툰 공모전 수상작



루머에 대처하는 닭발들의 자세

글/그림 김단비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중국산 닭발의 비위생적 생산 환경이
피해나가면서 닭발을 즐기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헐!!! 아 뉴스 좀 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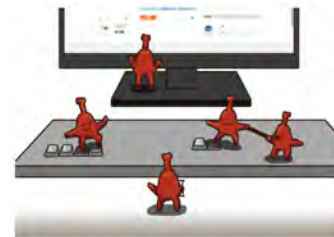
일어나라 친구들이여

우리의 계획은 이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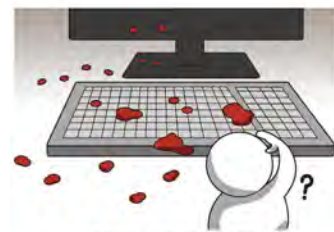


먼저 주인이 잠든 사이 컴퓨터에 접근한 후

2



언론중재 Eye-net(http://people.com.or.kr/)
에 접속하여 우리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것이다!



얼마 후



해당 보도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않은 채
인터넷 루머에 근거한 보도였다는
정정보도가 보도되었고
닭발들의 명예는 다시 회복되었다!



3



공모분야

<연구논문> : 표현의 자유, 인격권, 언론윤리, 미디어법제 등 <미디어와 인격권>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 전반(언론법제 관련 판례 평석 포함)

응모자격

1. 언론학 및 법학 관련 학회 회원
2. 관련 분야의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종사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등

제출마감

2017년 11월 13일(월)까지

논문접수

이메일 접수(journal@pac.or.kr)

※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를 참고하시거나 연구팀(02-397-3042)으로 문의바랍니다.